

한국어에는 주어가 없는가*

박 철 우 (안양대학교)

Chulwoo Park, 2014, Isn't Subject a Grammatical Category in Korean? *Studies in Modern Grammar* 76, 149-172. Even though it has long been stipulated that Korean has subject as a grammatical category and *i*(*ga*) is the subject marker in Korean sentences, there has been difficulties in identifying the subject in several types of sentences. Some of the types have *aun*(*heun*) or the like instead of *i*, others doesn't have any NPs which can be evaluated as subject at any rate in their surface, and the others have more than one *i*-attached NPs. Hence, these have brought an argument that Korean doesn't have subject as a grammatical category. In this paper, I reconsider the notion of subject and those arguments that Korean doesn't have subject, and argue that there does exist subject as a grammatical category in Korean. In any language, the notion of subject is applied to the basic sentences of it according to Keenan(1976) and I regard that 'flow dimension'(Kibrik 2001) should be skimmed off from the discussion of the existence of subject as a grammatical category, because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sentences including flow characteristics requires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sentences not including them. Furthermore, in my opinion, the existence of non-lexically-selected *i* as in multiple-nominative constructions is the proof that *i* as a nominative case marker is developed to subject marker when the condition of referentiality is met. In addition, I show some heuristics of identifying the subjects in Korean.

[Key words: subject, nominative, semantic role, flow, referentiality, Korean]

* 이 글은 2013년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겨울학술대회(주제: 통사론에서의 범주와 기능)에서 발표된 것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당시 팀 기획 발표를 제안하시고 주도하셨던 최성호(충북대) 선생님과 함께 참여하셨던 목정수(서울시립대), 최동주(영남대) 선생님들, 그리고 홍재성(서울대) 선생님을 비롯한 질의/논평을 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토론을 통해 주제에 대한 이해가 더 섬세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글의 모든 주장과 오류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1. 서론

이 글은 한국어에서 주어(subject)의 존재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어-목적어 관계의 존재는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문법 이론에서 받아들이고 있으며, 우리말 문법 기술의 전통에서도 그 존재에 대한 특별한 검증의 과정이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로 삼아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당연시되던 개념의 실재에 대한 물음은 새삼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이 서구 문법에서 출발한 것으로 서구 문법의 전통에서는 직관적으로 명백하였지만 서구 언어와는 구조가 다른 많은 언어들이 동일한 개념적 가정에 근거하여 기술되어서는 안 된다는 유형론적 연구 보고들이 이어졌고(Kibrik, 2001 참조), 한국어와 관련해서는, 그간 Li & Thompson(1976) 등의 논의를 수용하여 한국어가 서구 언어들과는 달리 주어 중심 언어가 아닌 주제 부각 언어(topic prominent language)라는 주장이 있어오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한국어와 관련해 주어의 실재 자체를 부인하는 논의가 출현하기에 이르렀으므로(강창석, 2010 등), 이제는 한국어에 주어라는 기능 범주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주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한국어에 그러한 주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논란이 되어 오던 주어 검증 방법에 대해서도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2. 주어란 무엇인가

2.1. 주어 개념의 기원

주어와 서술어(predicate)라는 개념의 발생은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50)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주어와 서술어를 단문을 이루는 대응 부분들로 정의하고, 주어는 단문 안에서 지칭적 명명(referential naming)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서술어는 특성 기술(characterizing)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보았다(van Kampen, 2006: 242). 이때의 주어와 서술어 개념은 단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문장을 두 구성성분으로 양분할 때 짝을 이루는 두 부분을 가리키는

개념이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주부-술부’와 같은 관계 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¹ 문장을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 술부는 다시, 동사와 동사가 표상하는 행위가 가해지는 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술부 속에서 다시 동사와 목적어(object)가 구분되었다. 그러면 목적어는 전적으로 주어의 존재를 전제하는 개념이 된다.

2.2. 주어와 주격 -문법 관계가 먼저인가, 격이 먼저인가

이와 같이 문장을 ‘주어-서술어[목적어-동사]’ 구조로 파악하는 직관이 정립된 이후에 라틴어 등 서구 문법에 명사의 곡용어미 체계로서의 격 범주가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출현의 선후 관계에 대한 추정은 경험적 검증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논리적인 개연성에 근거한 것이다. 격 체계에는 주격(nominative)-대격(accurative)이 필수적으로 포함되고 그 외에 생격(genitive)과 여격(dative)을 중심으로 한 몇몇 사격이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이들 격의 구성을 분석해 보면 결코 의미역할과 같은 일관된 기준에 의해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격 체계가 참조하고 있는 것은 이미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로 정립되었던 주어, 목적어라는 성분 개념과 그것들만으로 완결될 수 없는 그 밖의 참여자의 전형적인 몇몇 의미역할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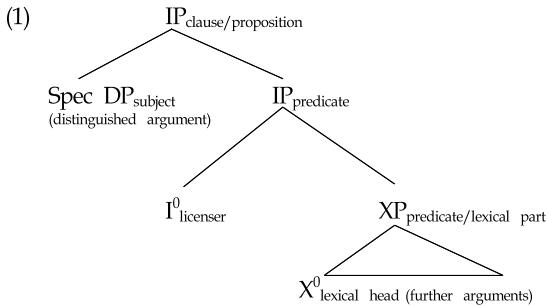
흔히 주어를 간단히 정의할 때 주어란 주격으로 표시된 성분이라고 하고, 주격을 정의할 때 문장의 주어가 되는 자격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순환론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동사와 관련되는 문장의 성분들이 격으로 표시되다 보

¹ van Kampen(2006: 242)은 보다 최근의 시각으로 Frege(1879)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서술어(predicate)는 그 지칭적 주어를 자신의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라는 것이다. 서술어 함수에 주어 논항을 적용한 것은 진술(statement) 또는 명제(proposition)와 등가의 단위가 되며,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롭고 구별된 특성을 가진 실체(entity)로서 참 값(참 또는 거짓)을 가지게 된다. 이런 관점으로부터 서술어는 주어 논항을 참 값을 가진 진술 위로 투사한다. 함수로서 서술어는 속성을 표상한다고 이해될 수 있다. 서술어 속성은 가상적인 가능한 사건 또는 사태의 무한히 확장된 부류에 대응한다. 그러나 이때 주어-서술어 구성에 있는 관계는 단순히 주어에 대한 속성 할당이 아니라, 참 값 속성에 의해 구별되는 새로운 통사적 실체를 창조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점이 단순히 의미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통사구조에 반영된다고 보지만, 이러한 시각 자체를 의미론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로 이해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문에서 직접 강조하지는 않으려 한다.

니, 주어의 정의를 주격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 데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주격인 성분이 주어가 되는 것이, 주어의 문법화의 결과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다 보니 형식이 내용(기능)을 지배하게 된 것이지만, 이와 같이 형식으로 기능을 정의하는 것은 그것이 더 쉽고 분명할지라도 중국에는 본질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 관련 현상을 설명하는 올바른 순서는, 문장이 어떤 대상을 가리켜 그것에 대해 말해 주는 언어 단위로 정의될 때 주어란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부분이고 서술어란 문장 속에서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해 말해 주는 부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동사가 요구하는 격들 가운데 주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격이 되고, 주격어가 있을 때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대격이라고 정의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관은 생성문법의 확대투사이론(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EPP)에 반영되어 (1)과 같은 구조로 표상될 수도 있다(van Kampen, 2006: 243).



(1)에서는 조동사/계사와 같은 활용소(I0)가 그것의 보충 성분으로 XP를 오른쪽에 취하고 왼쪽에는 IP의 지정어 자리에 지칭적인 구를 주어로 요구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4)과 같은 구조는 주어는 동사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논항들과는 구별되는 층위에 속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2.3. 통사관계의 다층적 기능과 주어

결과적으로, 통사적으로는 주어가 곧 주격어라고 정의하는 것이 주어를 한

정할 수 있는 편리한 방편이 되었지만, 이러한 논의는 문법 이론 발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서구 문법 중심의 것이다. 실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들 가운데는 라틴어처럼 격이 발달한 언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언어가 더 많고, 또 원인격 언어들처럼 격 체계가 ‘주격-대격’ 관계 중심으로 발달하지 않고 ‘원인격(ergative)-절대격(absolutive)’과 같이 의미역할에 더 중점을 둔 구조로 발달한 언어들도 있다. 따라서 주어라는 범주의 존재는 언어 보편적인 현상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Kibrik(2001: 1414-1415)은 통사관계(syntactic relation)와 관련될 수 있는 다층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한다.

- (2) 가. 역할 차원(role dimension)
 - 나. (정보의) 흐름 차원(flow dimension)
 - 다. 화시 차원(deictic dimension)
 - 라. 지칭 차원(referential dimension)

‘역할 차원’은 절이 기술하는 언어외적 상황의 의미와 관련하여 절 내의 특정 명사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차원이다.

- (3) 가. *Mother* washed the linen.
- 나. *The linen* was washed by *Mother*.
- 다. Who do *you* see?

(3)에서 (3가)의 ‘Mother’는 행동주(agent), (3나)의 ‘the linen’은 피동주(patient), (3다)의 ‘you’는 경험주(experiencer)로 각각 그 역할이 다르다. 영어의 경우, 두 개의 명사구를 포함한 절에서 행동주가 주어의 자리를 차지하고 피동주가 목적어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하나의 능동사(agentive verb)를 가진 절에서 그 관계가 역전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영어의 경우에는 주어가 역할 차원과 직접 대응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흐름 차원’은 담화의 정보 흐름에서 특정 명사구가 차지하는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즉 그것이 발화의 시작 지점에 있는가, 구정보/신정보를 전달하는가, 관심의 초점인가, 감정이입의 초점인가 등과 같은 화용론적 특성이 통사

관계와 상관성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많은 언어들에서 주어가 화제(topic)이 되고 목적어가 논평(comment)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4) 러시아 어

Žili-byli starki so staruxoj.

lived-was old.man with old.woman

There were once an old man and an old woman' (Kibrik, 2001)

(4)는 화제가 없지만 주어는 있는 사례이다.

‘화시 차원’의 의미들은, 원형적인 경우들에서, 발화를 화행의 동위 요소들과 상관 짓고, 특히 그것들이 동시에 화행 참여자가 되는 상황 참여자들을 표시한다. 명사구의 통사 위치 선정에 대한 화시 차원의 영향은 화행 참여자(화자와 청자)가 절에서 핵심적 위치(주어 위치를 선호)를 차지하는 경향을 가진다는 사실에서 보인다.

‘지칭 차원’의 의미들은 청자에 의한 명사구 지칭대상의 형성 혹은 확인에 기여한다. 지칭적 차원은 주어보다 더 자주 한정적 지칭대상을 지칭한다는 사실과 주어보다 대개 존재 전제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지칭적으로 자율적이라는 것, 즉 그것이 기술되는 상황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Kibrik(2001: 1415)은 기존의 유형론적 연구에 기초하여, 유럽 언어들의 경우, 주어의 무표적인 특징은 행동주(역할 차원), 화제(호름 차원), 한정적 지칭대상(지칭 차원)이라고 한다. 물론 구체적인 발화들이 이러한 원형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수많은 변이들을 허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이들이 가능한 것은, 주어-목적어 관계라는 것이 비중심적 핵심 명사들과 중심적 핵심 명사들을 대조시키면서 핵심 명사구들의 등급을 매기는 추상적 수단이고, 거기에서 첫 번째 등급(주어)이 어떠한 구체적인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행에 적합한 여러 의미론적 매개변인들 중에서 그 논항의 최대 중요성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하나의 차원(예컨대 역할 차원)에서 핵심성이 낮은 명사구도 다른 차원(예컨대 호름 차원)에서의 의미론적 요구가 높다면 주어 위치로 격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여러 의미 차원의 누적적(cumulative) 성격을 가진 주어의 형식이 있는 언어들을 주어 중심(subject oriented) 언어라 하여 그렇지 않은 언어들과 구분한다. 그러면서 주어-목적어 언어는 최소한 명사구들의 역할과 흐름이라는 매개변수를 누적적으로 부호화한다고 보고, 의미 차원 위계(Hierarchy of Semantic Dimension)로 공준화한다(Kibrik, 2001: 1416).

(5) 역할 < 흐름 < 화시/지칭 < 기타

모든 언어는 개별적으로 하나 이상의 의미 차원과 개념 범주를 문법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위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한다.

- (6) 가. 만일 화시 차원의 개념들이 문법화되어 있으면, 흐름과 역할 차원도 문법화되어 있다.
- 나. 만일 흐름 차원의 개념들이 문법화되어 있으면, 역할 차원의 개념들도 문법화되어 있다.
- 다. 만일 역할 차원의 개념들이 문법화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차원들의 개념들도 문법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에서 구분한 의미 차원들이 문법화 된 경우들을 축(pivot)이라고 부르면서, 언어들은 단축(mono-pivotal) 언어, 다축(multi-pivotal) 언어, 무축(pivot-less) 언어가 존재할 수 있으며, 만일 어떤 언어가 단축 언어라면 그것은 역할 지배(role-dominated) 언어여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한 사실을 실제 언어들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했다. 그의 분류에 따르면 단축 언어는 다시 원인격 지배 언어, 행동주 지배 언어, 대격 지배 언어로 구분될 수 있고, 다축 언어들은 다축이면서 여러 의미 층위가 누적적으로 문법화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를 주어 중심 언어, 후자를 다축 무주어 언어라고 부르고 있다. 다축 무주어 언어에는 타갈로그(Tagalog) 어처럼 주어 중심 언어와 기능적으로 유사하면서 역할 특성과 흐름 특성의 분리된 부호화를 보여주는 언어가 있고, 다게스탄(Daghestanian) 언어들 중에서 차후르(Tsakhur) 어처럼 원인격 역할 중심의 언어이면서 흐름 개념인 초점에 대한 독립적인 표지가 있는 언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Kibrik(2001)의 유형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영어가 주어 중심 언어인데 반해, 한국어

는 흐름 차원의 표지인 화제 표지 ‘-는’이 있으므로, 타갈로그 어와 마찬가지로 다축 무주어 언어가 될 것이다.

2.4. 비판적 검토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어의 확인은 어떤 언어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영어의 경우, SVO의 어순에 의해 주어 자리와 목적어 자리가 확연히 구별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어떠한 의미 차원으로 구별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순수하게 통사적인 기준으로 주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영어에서는 비인칭의 *it*로 주어 자리를 채운다든지, 1·2인칭 대명사 등 담화 상황에서 명백한 경우를 포함하여 논항이 담화상에서 생략되어도 좋을 만한 경우에도 대명사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모든 문장에서 주어가 확인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2.3에서와 같이 다차원의 의미가 누적적으로 주어라는 통사적 현상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좀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면, 영어의 경우에도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의미 차원은 역할 차원과 지칭 차원뿐이다. 흐름 차원은 어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문두에 오는 요소가 항상 화제 또는 구정보라는 프라그 학파적 시각이 받아들여질 때만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영어의 경우, 운율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문장에 화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 문장이 화제 없이 바로 초점 부분으로 시작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율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영어에도 휴지나 소위 B-악센트와 같은 화제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형태로 나타나는 문법적 수단만을 고려하여, 화제/초점 표지가 있는 언어는 다축 무주어 언어이고 영어와 같이 운율적인 화제 표지를 가지는 언어는 주어 중심 언어라고 규정하는 것은, 너무 강한 입장이고 영어 중심의 시각이라고 판단된다.

어차피 영어에서도 주어의 의미 차원의 원형성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기본문(basic-sentence)을 중심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Keenan(1976: 307)은 기본

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어떤 언어에서든 기본적인 문장에서 기본적인 주어를 찾아냄으로써 주어의 보편적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7) 특정 언어에서의 기본문의 정의

임의의 언어 L에서,

- 가. 통사구조 x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그리고 그럴 때만 통사구조 y보다 의미적으로 더 기본적이다. 즉 y의 의미가 x의 의미에 의존할 때, 다시 말해서, y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x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일 때.
- 나. L의 임의의 문장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때 그리고 그럴 때만 (L에서) 기본문이다. L의 어떤 (다른) 완전문도 그것보다 더 기본적이지 않을 때.

그는 기본문을 (7)과 같이 정의하고 기본 주어의 다양한 통사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장의 주어는 다른 명사구보다 그런 기본 주어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진 것이라고 보았다.

그가 주어의 통사적 특성으로 많은 것을 제시해 주었지만, 실제로 기본문이라는 것을 그렇지 않은 문장으로부터 추출한다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5)에 제시된 위계와, 영어의 경우에 흐름 차원이 고려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주어 문제는 흐름 차원을 최대한 배제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립적인 확인 방법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3. 한국어의 주어

이상의 주어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를 한국어의 경우를 적용하여 한국어의 주어를 확인해 보기로 하자.

3.1. 역할 차원

먼저 한국어 명사구들의 역할 차원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어는 주격-대격 언어인가, 아니면 원인격-절대격 언어인가? 이 물음에 대한 명백한 답은 주격-대격 언어라는 것이다. 그리고 주격-대격이 각각 표시되는 방식은 주격조사 '-이/가'와 대격조사 '-을/를'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진술일 것이다.

- (8) 가. 철수가 바위를 움직였다.
나. 바위가 움직였다.

한국어는 구체적인 의미역할이 동작주와 피동주로 구분되는 것보다 동사마다 주된 역할을 하는 주격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언어이다.² 따라서 경험주, 행동주, 피동주, 자극 등 다양한 의미역할에 해당하는 명사가 주격으로 실현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의 격과 조사에 대한 논의에서, 이상과 같은 진술에 찬성하지 입장들이 이러저러한 형태로 존재했었는데 그 입장들을 간략히 구별해 보자면 다음 (9)와 같은 몇 가지가 될 것이다.

- (9) 가. 한국어에는 격이 없다. (고석주, 2004 등)
나. 한국어에는 무표격(default case)이 있다. (안병희, 1966 등)
다. ‘-이/가’와 ‘-을/를’은 주제/초점/(비)한정성 표지이다. (임홍빈, 1972 등)

(9)의 각 입장들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각각이 서로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의 주장들이 한국어가 ‘주격-대격’ 언어이고 ‘-이/가’와 ‘-을/를’이 각각 ‘주격’과 ‘대격’을 표시한다는 일반화에 대한 반론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이 그 자체로서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9)의 주장들은 하나씩 살펴보면 독자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9가)와 같은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격(case)’이라는 문법범주는 서구 언어에서 정립된 개념으로서 형태론적으로 마땅히 명사 곡용 범주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문법범주가 형식적으로 정립되는 방식, 즉 문법화의 과정은 언어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다. 형식이 엄격하게 정립된 언어의 방식을 기준으로 삼아 그만한 엄격함을 가지지 못한 언어는 동일한 문법범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문법범주가 형성될 수 있는 기능적 동기에는 어느 정도의 언어 보편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격이 동사가 자기 논항들에 부여하는 일종의 자격이라고 볼 때 명사 곡용 체계를 가진 언어나 그렇지 못한 언어나 동사가 논항을 요구하고 그것들에 일종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직관은 공히 유효하다고 할 때, 우리는 동일한 기능에 대한 직관이 서로 다른 언어들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² 한국어와 관련해서 여기서의 ‘동사’는 용언(동사+형용사)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한국어의 경우, 조사라는 교착적인 방법에 의해 격이 실현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격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는 조사도 있고, 조사의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주들 사이의 경계 설정이 덜 명확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9나)와 같은 주장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러한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가’나 ‘-을/를’이 ‘-에’나 ‘-(으)로’를 비롯한 여러 어휘격 조사들과는 달리, 생략될 수 있고, 분포 면에서 어휘격 조사보다 더 바깥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것들이 격조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명사구 뒤에 아무 조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명사구의 격은 무표격이 비형태적인 방식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면 그 실현 방식은 어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와 같은 주장은 문어 문법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 (10) *병들어 아플 때는 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정상 건강상태 회복할 것이라는 사실 잘 믿기지 않는다.
(병들어 아플 때는 내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정상 건강상태를 회복할 것이라는 사실이 잘 믿기지 않는다.)

(10)은 한 책에서 임의로 발췌한 문장에서 ‘-이/가’와 ‘-을/를’을 제외해 본 것인데 정상적인 문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어 문법에서만 (9나)의 주장을 검증해 볼 수 있다.

- (11) 가. 개 사람 물었다.
나. 사람 개 물었다.

그런데 (11)과 같은 예에서, (11가)의 ‘개 사람’이 ‘개가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11나)의 ‘사람 개’가 ‘사람이 개’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할 만큼 한국어에서 어순이 무표적으로 격을 표시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어순이 강제하는 것보다 명사의 의미 선택제한이 더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 (12) 가. 너 나 좋아해.
나. 아빠 엄마 좋아. 엄마 아빠 좋아.

(13) 가. 나 좋아해.

나. 엄마 좋아.

(12)와 같이 두 개의 명사항을 모두 같은 의미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상정한 경우에만 겨우 앞에 오는 명사구가 주어, 뒤에 오는 명사구가 목적어라는 직관을 얻을 수 있는 듯하지만, (13)과 같이 한 자리가 생략되면 바로, 남아 있는 것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판정할 근거가 사라진다. (13)이 가능하다면 (12)도 사상누각이어서 (12가)의 두 명사구가 ‘너와 나’로 이해되어 그것이 주어진 목적어든 될 수 있다고 하는 해석들을 피할 수 없다.

(9다)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9가,나)의 주장들이 (9다)를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고, (9다)의 주장은 (9가,나)를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9다)는 반드시 그 자체로서 검증이 되어야 하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9다)를 적극적으로 검증하는 설득력 있는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가’와 ‘-을/를’이 주제라고 주장하는 논의들은(임흥빈, 1972 등) 그것들이 주제를 표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주제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만 그것들이 각각 ‘배타성’, ‘대상성’ 등의 화용적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그러한 개념들이 문법 이론의 측면에서 명확히 정립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³ 또한 이들 조사가 (비)한정성을 표시한다는 주장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정도의 설명력밖에는 갖지 못한다. 반면, ‘-이/가’와 ‘-을/를’이 격을 거슬러 표시된 경우에는 단박에 비문이 된다.

(14) (‘철수가 밥을 먹었다’는 의미로)

가. 철수가 밥을 먹었어.

나. *철수를 밥이 먹었어.

다. *철수가 밥이 먹었어.

라. *철수를 밥을 먹었어.

(14)는 ‘-이/가’와 ‘-을/를’이 주격과 대격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³ 문법범주로서의 격을 부인했을 때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차원의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문법범주 논의와는 별도로 화용론적으로 그런 면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개념들이 화용론적으로 그렇게 명확히 이론화된 것들도 아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한국어가 주격-대격 언어이며, 주격과 대격을 표시해주는 표지가 ‘-이/가’와 ‘-을/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흐름 차원

한국어에는 흐름 차원에서 구정보이면서 관심의 초점인 화제(topic)를 표시하는 형태소가 따로 있다. ‘-은/는’이 그것이다. ‘-은/는’은 한정적인 명사구에 붙기는 하지만 그것이 한정성을 표시해 준다고는 볼 수 없다.

(15) 가. 철수는/그는/그 학생은/한 학생은/학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 철수가/그가/그 학생이/한 학생이/학생이 돌아오지 않았다.

(15)에서 한정성은 ‘철수, 그, 그 학생’과 같은 표현에서 고유명사, 대명사, 지시 관형사 등에 의해 이미 표시되어 있는 셈이며, ‘학생’이 한정적인 것은 ‘-은/는’에 의해서도 보장되지만 ‘-이/가’가 붙어 주어이기만 해도 확보된다. ‘한 학생’은 (15가,나) 모두에서 특정적이다. 따라서 한정적인 경우와 특정적인 경우를 묶어 지칭적(referential)이라고 부른다면 (15)의 모든 명사구들은 지칭적이다. 따라서 지칭성은 화제나 주어나 모두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은/는’에 의해 화제가 된다는 것은 지칭성이 확보된다는 것 이상의 기능이 있다. 그것은 화자가 청자가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지식들(구정보) 가운데 특정 대상을 의식의 활성화된 영역에 떠올리게 하고, 그 대상과 관련하여 뒤에 덧붙이는 지식들(신정보)을 저장하라는 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Chafe, 1976; Vallduvi, 1990; 박철우, 1998 등 참조).

Kibrik(2001)은 영어에서 화제가 주어 자리에 함께 누적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영어에서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영어에서도 B-강세(Jackendoff, 1972) 또는 그와 유사한 운율적 수단이 어순에 의한 통사적 주어 위치 이외에 별도의 화제 표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B-강세는 대조성이 강한 경우에 주로 쓰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휴지(pause) 등을 통해 화제와 초점 사이의 경계가 표시된다. 그러니 영어의 경우 형태론적으로 실현된 표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뿐이지, 화제 표지가 존재하는 셈이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주어와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영어에서도 (4)의 러시아어 예와 마찬가지로

지로 화제가 없지만 주어는 있는 예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한국어와 같이 화제 표지가 따로 존재하는 언어의 경우, 그 화제 표지가 실현될 때 주격, 대격 등의 역할 표지가 함께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언어가 확고한 주어 중심 언어인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주된 이유가 되는 것은 일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한국어의 경우, 주격과 화제가 중복될 때 주격은 실현되지 않고 화제만 실현된다.

(16) 철수는 공부를 잘한다.

그렇다면 ‘-은/는’이 주어 표지일 수도 있는가?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없다.

(17) 가. 공부는 철수가 잘한다.

나. 철수가 공부는 잘한다.

다. 철수가 공부를 잘한다.

‘-은/는’은 주격과 겹쳐지지 않을 수도 있고, 문두에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문장에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주격과 화제가 중첩된 (16)의 ‘철수는’은 확실히 주어로 보이지만 (17)의 예들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명확하지 않다. (17다)의 ‘철수가’는 주어로 보이지만 그것이 화제의 역할을 겸하고 있지는 않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한국어의 주어는 ‘화제’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한국어의 주어는 역할 차원의 위계와는 관련이 있지만 흐름 차원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영어의 경우에도 운율적 수단까지 고려한다면 그리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예를 보면 한국어 통사구조에서 화제는 주어보다 한 층 위 높은 위치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 김 선생님은 김 선생님이 직접 차를 운전하신다. (남기심·고영근, 1985)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16)은 선행하는 화제의 실현으로 인해 후행하는 주어 자리의 명사구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그러한 가정은 영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⁴

결국, 한국어의 경우, 화제가 별도의 표지를 가진다는 점 때문에 실제 발화에서 화제가 주어보다 더 부각되는 인상을 주고, 그래서 한국어는 주어보다 화제가 더 중심이 되는 언어로 보이지만, 문장 단위에서 화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렵다. 화제는 담화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현상이므로, 문장의 나머지 부분이 그것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대상을 주어라고 보는 문장 차원의 논의에서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Keenan(1976)이 말하는 기본문에서 마땅히 제외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화제 등 흐름 차원의 정보가 포함된 문장의 의미는 그런 정보에서 중립적인 문장의 의미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문과 기본 주어의 논의에서 흐름 차원(정보구조)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영어에서도 'Chocolate, I like.'와 같은 문장이 주어 논의에서 고려되지는 않을 것이다.

요컨대, 주어는 문장 안에 반드시 하나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화제는 담화적 요소이므로 문장 안에 반드시 하나 있어야 하는 현상이 아니다. 주어는 기본문에서 다루어야 하는 현상이고 화제는 기본문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16)과 (17)에서 기본문은 (17다)이다.

흐름 차원과 관련하여,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언급할 것이 있다. 한국어가 논항들의 생략이 자유로운 언어이다 보니, 그러한 성분의 존재가 한국어 문법에는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강창석, 2011; 최성호, 2013). 즉 화용적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더라도 문법적으로는 없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기본문이 '샀니?'와 같이 하나의 어휘소와 하나의 형성소로 이루어진 발화문이라는 최성호(2013: 25-29)의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⁴ 목정수(1998)는 명사구 내에서 조사들 사이의 결합 분포를 따져볼 때 '가, 를, 는, 도'를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는 명사구 내에서는 유의미한 주장이다. 그러나 서술어, 술부, 담화상의 다른 발화와 상관성을 고려한 통사적 층위에 대한 고려가 추가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들의 통사적 위상은 더욱 섬세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 를, 는, 도'가 함께 묶이는 것이 과연 문법 범주로서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지칭성이 그 네 조사에 더 빈번하게 반영되는 경향성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샀니?’라는 문장은 2인칭 주어를 무뎡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철수’와 같은 3인칭 주어를 표시하려면 그 무뎡음을 3인칭으로 대체하면서 부가의 방법으로 ‘철수가 샀니?’를 생성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그와 같은 논리라면 ‘샀니?’도 많은 것이다. ‘사니?’면 충분할 것이다. ‘-었’과 같은 선어말어미도 무뎡음을 대체하는 수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⁵ 그러나 우리는 특정 언어에 특정 문법범주가 존재한다면 그 범주의 자리가 온전히 채워진 상태를 기본문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뎡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범주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것을 대체하면서 다른 값이 부가된다는 주장보다는 그 자리가 요구되고 있고 해당하는 값이 생략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방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⁶ 또한 ‘문장’이라는 단위는 서두에서부터 제시하였듯이 지칭대상이 먼저 제시되는 것이 더 직관에 부합한다. 최성호(2013)은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 값이 잉여적일 때도 반드시 자리를 채울 것을 요구하는 문법이라야 그런 자리가 통사적으로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시각이야말로 문법적으로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는 요소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서구어 중심의 시각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어의 문법이 엄격하기는 하지만 구어에서는 대명사들이 생략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문법 틀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⁷

5 이러한 필자의 지적에 대해 최성호 선생님은 시제는 필수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고 응답하셨다. 그리고 최성호(2013)이 ‘기본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는 ‘최소문’으로 그러한 단위를 상정한 것인데, 필자는 이것을 기본문과 상통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6 Keenan(1976)에서도 대명사가 나타난 문장보다는 고유명칭 등 실질적인 어휘가 실현된 경우를 기본문으로 본다. 간단하기는 대명사가 더 간단하지만 대명사를 이해함으로써 고유명칭을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고유명칭의 의미를 이해할 때 대명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7 홍재성 선생님께서는 ‘거기에는 선생님밖에 안 계셨어요’에서 주어를 상정할 수 없다든지, ‘비가 온다’에서 ‘비가’를 주어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예를 제시하시면서, 한국어에 주어 범주가 존재한다는 필자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셨다. 그러한 지적에 대해 필자는 담화상에서 상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발화문을 대상으로 문법범주의 존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응답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중명(私信) 선생님은, ‘비가 온다’의 경우, 동사구 내부 주어만 있고 문장의 주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고, 필자는 발화 단위가 아니더라도 문장들 가운데 주어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한국어에

3.3. 지칭 차원

지칭 차원을 논의하기 전에, 화시 차원은 지칭 차원과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임을 언급해 둘 필요가 있겠다. Kibrik(2001)에서도 아무런 예시 없이 층위만 구별해 놓고 있고 실제로는 지칭 차원과 통합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굳이 예를 들자면, 명령문이나 청유문의 생략된 주어나 근래 사물 존재 어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가 포함된 이중 주어 구문의 이인칭 주어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도 화시 차원을 지칭 차원과 구별하지 않고 이 두 차원을 함께 포괄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지칭 차원은 2절의 서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주어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지칭 차원이 표시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서구 언어들의 경우 한정 관사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어에는 한정성을 표시할 수 있는 고정된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칭성을 지닌 구성으로 볼 수 있다.

- (19) 가. ‘이, 그, 저, 한, 어떤’ 등과 같은 지시 관형사 + 명사
 나. 고유명칭(철수, 대한민국, 서울, 금강산, 한강…)
 다. 보통명사가 유개념을 종류(kind)로서 지칭할 때(‘사자는 사납다’ 등)
 라. 대명사
 마. 그 밖의 화시 표현(‘지금’, ‘여기’와 그 관련어들)
 바. 담화상에서 반복 출현한 일반명사(옛날에 개와 고양이가 살았다. 개는 …, 고양이는 …)

(19)에 의해 지칭 표현은 전부 포착될 수 있다. (19바)와 같이 문맥상에서 구별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국어가 한정성 표지가 있는 언어에 비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정성이라는 기능을 포착하는 데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어는 반드시 (19)에 해당하는 명사구라야 한다. 따라서 (20나)에서 ‘사과가’가 주어가 되기는 어렵다.

- (20) 가. (내가 부엌에 들어갔더니,) 철수가 사과를 먹고 있었어.

문법범주로서의 주어가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본다고 답하였고 이런 점에서는 김종명 선생님도 필자와 의견을 같이하였다.

나. (내가 부엌에 들어갔더니,) #사과가 철수에게 먹히고 있었어.

(20나)에서 구조적으로는 ‘사과가’가 주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지칭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것이다.

3.4 소결: 한국어의 주어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한국어는 주격-대격 언어로서 동사에 의해 요구되는 주격어가 주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라틴어, 영어 등 서구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둘째로, 화제 표시가 따로 있음으로 해서, 화제와 주어가 누적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주격어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그로 인해 한국어는 실제 발화들을 관찰하면 주어보다 화제가 더 부각되는 언어처럼 보인다. 그러나 흐름 차원의 범주를 문장 차원의 범주와 같은 층위에서 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Keenan(1976)의 기본문 개념을 수용할 때 흐름 차원은 주어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어는 본래 그 발생적 개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지칭성을 가져야 한다. 지칭성이 없는 명사구가 주어가 되기는 어렵다.

4. 주어의 확인 방법

4.1. 한국어의 통사적 주어

우리는 한국어에서 조사 ‘-이/가’가 주격을 표시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한국어의 대부분의 동사는 그것이 하위범주화하는 논항 가운데 하나에 주격을 배당한다. 그러면 모든 주격을 가진 명사구는 주어의 후보가 된다. 그런데 주어는 지칭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를 정리하자면 지칭성을 가진 주격어가 한국어의 주어가 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의는 우리에게 크게 시사해 주는 것이 있다. 지칭성이라는 것은 동사에 의해 요구될 수 있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 지칭성은 화자가 특정 대상에 대해 평가하고자 할 때 그 대상을 먼저 지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가 지칭성을 가진다는 것은 주어가 단순히 동사에 의해 의미적으로 요구되는 논항

의 하나가 아니고 화자가 서술어를 선택하기 이전에 먼저 제시하는 단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에 의해 요구되는 격들은 분리되어야 마땅하다.

(21) 주어(=지칭적 주격어) + 서술어(논항0+(논항1+논항2)+동사)⁸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는 (21)과 같이 서로 별개의 것이지만 서술어가 요구하는 특정 논항(논항0)이 주어와 의미 선택 제한에서 일치하면 그러한 일치 관계를 매개로 하여 주어와 서술어가 결합하고 그러한 결합에 의해서 문장이 형성되는 것이다.⁹

(21)은 문장의 핵이 동사이고 주어도 동사로부터 전적으로 어휘적으로 선택된다는 생각에 전환을 가져오게 해 준다. 다음 이중 주어 구문의 예로 논의해 보기로 하자.

(22) 코끼리가 코가 길다.

(22)와 같은 이중 주어문에서 동사는 ‘길다’이고 ‘길다’는 하나의 논항만을 요구한다. 그리고 의미 선택 제약을 고려한다면 ‘코’가 주어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코’는 (19)에 제시된 지칭성을 가진 명사구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보통명사이지만 (19다)에 제시된 종류 지칭의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지칭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22)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본다.

(22') 코끼리가 [[Ø-(의) 코가] 길다]

즉 ‘길다’의 논항 자리를 ‘코’가 채웠으나, ‘코’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한 자리 논항이 채워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코가 길다’라는 한 자리가 빈 서술어가 형성이 됐다. 그런데 그 빈 자리가 ‘코’에 의해서 요구될 때는 그것이 명사이기 때문에 관형격 ‘-의’ 논항이 요구되었으나 ‘코가 길다’에서는 그

⁸ (21)에서의 주어와 서술어는 ‘주부’와 ‘술부’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⁹ 이것은 형식의미론의 유형 전환(type-shifting)과 유사한 시각이다. 즉 <e> 유형이 <e, t> 유형에 의해 요구된다는 시각에서 <<e, t> t> 유형이 <e, t>를 요구한다고 보는 시각으로의 전환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구성이 동사구가 되므로 새로 주격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의미역이 어떻게 할당되는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것은 어휘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할당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코’가 요구하는 소유주와 공지칭 관계에 있으므로 코와 관련하여 소유주의 의미역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전체 문장에서는 이러한 구문이 자주 사용됨에 따라 해석적인 측면에서 주어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미역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좁혀져 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는 이미 대상 역으로 굳어졌다고 볼 수 있다.

4.2. 주어 확인 방법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수 있었던이, 국어의 주어는 ‘-이/가’에 의해 표시된다.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화제 표시 ‘-은/는’을 비롯한 담화 기능을 가진 조사들 ‘-도, -만, -부터, -조차, -마저, -까지’ 등이 실현된 명사구가 주격어인지 아닌지를 판정해야 하는 경우일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조사들은 주어보다 한 층위 높은 위치에 제시되는 것으로 보아, 그런 조사구가 실현되면 주격 조사구가 생략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주격 조사구는 동사에 의해 할당되는 것이므로 동사의 격들을 참조함으로써 복원이 가능하다.

주어 확인과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는 것은 이중 주어문인데 이중주어문은 주어와 서술절로 이루어진 구성으로 본다. 박철우(2002)는 서술절 부분을 어휘-층위라 하고, 주어와 추가적인 논항이 문장-층위를 이루어, 어휘-층위와 문장-층위에서 각각 보충어와 부가어를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화자에 의해 주절 층위에 제시되는 문장-층위 논항들은 지칭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주어문은 주절과 서술절에 각각 주격이 실현됨으로 해서 주격어가 중첩된 경우이다. 이 경우 문장의 주어는 주절에 실현된 주격어로 보아야 하고, 서술절 속의 주격어는 주절의 주격어와 모종의 선택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 절에서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에서 주어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많은 문장 유형은 심리형용사 구문일 것이다.

- (23) 가.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나. 내가 호랑이가 무섭다.

- 다. 나에게는 호랑이가 무섭다.
- 라. 나에게 호랑이가 무섭다.
- 마. 호랑이는 나에게 무섭다.
- 바. 호랑이가 나에게 무섭다.
- 사. 호랑이는 무섭다.
- 아. 호랑이가 무섭다.

우리는 (23)과 관련하여 우선 화제문을 기본문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23가)는 (23나)로, (23다)는 (23라)로, (23마)는 (23바)로, (23사)는 (23아)로 환원될 수 있다. 그리고 (23아)는 ‘무섭다’가 객관형용사로서 한 자리 논항을 가지는 동사로 보고, (23바)은 문장-층위에 부사어 ‘나에게’가 부가된 구성으로 보며, (23라)는 (23마)로부터 흐름 차원의 요인에 의해 부사어가 문두로 옮겨진 것인데 이것은 화제화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을 구정보(전제)로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23다-아)에서는 모두 ‘호랑이’가 주어이고, 그 층위가 주절 층위이다. 그런데 (23나)에서는 ‘나’가 화자에 의해 주어로 제시된 것으로 그것이 문장-층위의 논항을 이루고 ‘내가 [호랑이가 (나에게) 무섭다]’와 같이 ‘호랑이가 나에게 무섭다’가 서술절과 같은 어휘-층위를 이루는데 여기서 ‘나에게’는 여전히 부가적 요소로 보인다. 그러면 이 구성은 이중 주어 구성처럼 이해될 수 있지만 주절의 주어 ‘나’와 서술절의 주어 ‘호랑이’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성립되는 구성이 아니고, 주절의 주어와 서술절의 부가어 ‘나에게’ 사이에 공지칭 관계가 있는 특수한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과정의 결과로, ‘내가 호랑이가 무섭다’는 심리(주관)형용사로의 파생적 전환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호랑이’의 성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으나, 서술절의 주어라는 것 이외에, 주절의 목적어나 보어로의 처리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들이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주어의 통사적 특성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재귀화, ‘-시-’와의 일치 관계, ‘-들’과의 일치 관계 등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관련 문법범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선택적 수단이어서 문장에 항상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구성에서 어떤 성분이 주어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용한 면이 있다.

(24) 가. 오빠_i가 영희_j를 자기_{i/j} 방에 가두었다.

- 나. 김 선생님이 형님이 부자시다.
 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마당으로들 내보냈다.

그러나 채귀사 ‘자기’의 경우, (24가)와 같이 ‘가두다’를 어휘해체 하여 ‘들어가(서 못 나오)게 하다’와 같이 분석할 때 그 해체된 일부분에 해당하는 ‘들어가다’의 주어가 될 수 있는 ‘영희’까지도 선행어로 허용할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시-’의 경우, (24나)와 같이 이중 주어문의 주절 주어와 서술절 주어를 모두 허용한다는 점에서, ‘-들’의 경우도, (24가)와 마찬가지로 어휘해체가 되었을 경우 그 일부분의 주어까지도 포착한다는 점에서 완벽한 검증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주어를 먼저 설정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들은 모두 주어와 관련된 통사 현상으로서 유의미한 것들로 볼 수 있다.

5. 결론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한국어에 과연 주어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 주어의 개념을 그 기원으로부터 살피고, 주어와 주격은 순환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인지 검토해 보았다. 또한 유형론적 시각에서 주어-중심 언어와 주어 없는 언어를 구별하는 Kibrik(2001)의 논의를 소개하고, 그가 말하는 역할 차원, 흐름 차원, 지칭 차원에서 한국어의 경우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한국어가 화제 중심 언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흐름 차원에 민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어의 개념은 문장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기본문을 상징하는 Keenan(1976)의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흐름 차원은 주어 논의에서 마땅히 배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주어는 문장마다 반드시 하나씩 있어야 하고 화제는 없어도 된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 받을 수 있다.

주어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한국어에의 적용을 통해, 우리는 한국어에도 주어가 있으며 주어는 주격으로 표시되며 지칭성을 지닌 명사구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주어가 동사에 의해 어휘적으로 선택되는 논항들 중에서만 가능하다는 시각에 배치되는 것이지만 지칭성이 확보되지 않은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되므로, 지칭적 결여가 있는 새로운 논항을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빈자리가 있는 동사구가 새로이 형성되었

을 때 그 자리에 요구되는 한 자리 논항에는 주격이 할당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구조적 개념과 상통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어 확인 방법으로 결국 ‘-이/가’와 지칭성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이중 주어 구문, 심리형용사 구문 등을 통해 예시하고,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주어 검증 수단인 재귀화, ‘-시-’, ‘-들’ 등은 검증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주어가 보이는 통사적 행태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요컨대, 한국어는 주어가 있는 언어이며, 지칭 차원에 대한 조명을 통하여, 서술어 중심의 문장 형성 시각이 주어 중심의 문장 형성 시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 이 글의 작지만 큰 소득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바이다.

[주제어: 주어, 주격, 의미역할, 흐름, 지칭성, 한국어]

참고문헌

- 강창석. 2011. 국어 문법과 主語. 『개신어문연구』 33, 47-77.
- 고석주. 2000. 한국어 조사의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귀화. 1994. 『국어의 격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김영희. 1978. 겹주어론. 『한글』 162, 39-72.
- 남기심. 1985. 주어와주제어. 『국어생활』 3, 92-103.
- 남기심·고영근. 1985.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목정수. 1998. 한국어 격조사와 특수조사의 지위와 그 의미 -유형론적 접근-. 『언어학』 23, 47-78.
- 목정수. 2004. 記述動詞와 主觀動詞 앞의 ‘가形 成分’의 통사적 기능-單一主語說 정립을 위하여-. 『어문연구』 32, 37-61.
- 박철우. 1998.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철우. 2002. 국어의 보충어와 부가어 판별 기준. 『언어학』 38, 75-111.
- 박철우. 2005. 서술절의 성립 요건 -이중 주어문을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논문집』 22, 151-171.
- 박철우. 2007a. 국어의 태 범주: 통사부와 의미부의 접면 현상. 『한국어학』 37, 207-228.
- 박철우. 2007b. 국어 분리 구성의 형식과 기능. 『언어학』 49, 211-233.
- 안명철. 2001. 이중주어 구문과 구-동사. 『국어학』 38, 181-207.

- 안명철. 2011. 주격 중출 구문과 귀속역. 『어문연구』 152, 81-111.
- 안병희. 1966. 부정격(Casus Infinitus)의 정립을 위하여. 『동아문화』 6, 222-223.
- 오충연. 2001. 敘述關係로 본 二重主語文의 재해석 -論項構造와 對比하여-. 『어문연구』 29, 43-70.
- 유현경. 2005. 형용사 구문의 주어에 대한 연구. 『배달말』 37, 177-210.
- 유형선. 2003. 한국어 주어 연구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12, 5-20.
- 연재훈. 1996. 국어 여격주어 구문에 대한 범언어적 관점의 연구. 『국어학』 28, 214-275.
- 이홍식. 1996. 현대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홍빈. 1972. 국어의 주제화 연구. 『국어연구』(서울대) 28.
- 임홍빈. 2007.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주제 개념의 새로운 전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성호. 2013. 교착 통사론 - 생략과 부가. 『언어학』 65호, 3-37.
- 최응환. 2007. 주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언어과학연구』 43, 49-69.
- 한정한. 2013. 국어의 주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유형론의 관점, 서술어의 유형별 주어 정의. 『한국어학』 60, 189-225.
- Chafe, W.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C. N. Li (ed). *Subject and Topic*, 25-55. New York: Academic Press.
- Jackendoff, R. S.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Keenan, E.L. 1976. Towards a Universal Definition of "Subject." In C. N. Li (ed). *Subject and Topic*, 303-333. New York: Academic Press.
- Kibrik, A.E. 2001. Subject-oriented vs. Subjectless Languages. In M. Haspelmath, E. König, W. Oesterreicher and W. Raible (eds).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An International Handbook*, 1413-1423. Berlin: Walter de Gruyter
- Li, C.N. and S.A. Thompson. 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In C. N. Li (ed). *Subject and Topic*, 457-489. New York: Academic Press.
- van Kampen, J. 2006. Subject and 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In K. Brown (editor-in-chief).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2nd ed. vol. 12, 242-248. Boston: Elsevier Science.
- Vallduvi, E. 1990. *The Information Componen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